

## 『분홍문의 기적』 한 학기 한 권 읽기



### 그래도 행복한 우리 집

늘 곁에 있어서 그 소중함을 잘 모르는 것들이 있지요? 물이라든가 공기라든가 햇빛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매일 먹어서 물릴 것만 같은 김치, 밥 같은 음식도 외국 여행을 할 때는 못 견디게 그리워지죠. 옆에서 조잘조잘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단짝 친구도 싸워서 서로 못 본 척 할 때는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소리가 그리워질 거예요. 가족도 그렇지 않을까요? 늘 옆에서 잔소리를 해대는 우리 엄마, 엄마의 잔소리를 듣지 않을 수만 있다면 정말 행복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본 적 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말도 없이 떠나버렸다면, 그래서 영영 다시 만날 수가 없다면 어떨까요? 엄마를 보고 싶은 간절함이 갖고 온 기적 같은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분홍 문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 ▶ 책 읽기 전에 알아두기

‘까치밥’이라는 이야기를 들어 본 적 있나요? 늦가을에 감나무에서 익은 감을 딸 때 모두 따지 않고 몇 개를 남겨 두는 풍습이 있어요. 감나무에 남겨 둔 감을 까치밥이라고 부른답니다. 먹을거리가 부족한 겨울 날, 까치나 새들이 먹으라고 남겨두는 것이지요.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생명들도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상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는 풍습입니다.

그런데 왜 하고 많은 새 이름들 중에 ‘까치’라는 이름을 갖다 붙였을까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새는 까치입니다. 까치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조금 특별한 새인 것 같아요. 까치는 높다란 나무 위에 둥지를 만들고 그 둥지를 중심으로 사는 텃새입니다. 계절에 따라 이동하는 철새가 아니라 자신이 살던 곳에서 죽 사는 새를 텃새라고 하거든요. 까치의 먹이는 매우 다양하지만 그중에서도 해충을 잡아먹어서 농사를 많이 짓던 옛날에는 이로움을 주는 새로도 알려져 있지요. 아침에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찾아온다는 말처럼 좋은 일이 생기게 하는 길조로도 유명합니다. 견우, 직녀 이야기에서도 헤어진 견우와 직녀를 위해 오작교를 만들어 두 사람을 만나게 해 주기도 하고 ‘은혜 깊은 까치’에서는 자신의 몸을 희생해 선비를 살려 주는 새로도 나오지요. 그래서 까치는 예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척 좋아하는 새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 감나무에 남겨두는 감을 까치밥이라고 불렀겠지요.

『분홍 문의 기적』에서도 까치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에서 까치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궁금증을 안고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 ▶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읽기 전에 책 표지를 먼저 꼼꼼히 살펴볼게요. 빼꼼히 열려 있는 예쁜 핑크빛 문이 보이네요. 제목이 ‘분홍 문의 기적’이니까 표지에도 분홍 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분홍 문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요? 자유롭게 상상하여 이야기해 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표지에서 단서를 찾아볼까요? 빼꼼히 열린 문틈 사이로 무엇이 보이나요? 요정 같기도 하고 나비 같기도 한 날개 달린 작은 사람이 보이는군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피터팬에 나오는 텅커벨처럼 분홍 문 안에 살고 있는 요정일까요? 이야기를 읽기 전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미리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이야기에 대한 기대와 궁금증이 점점 커지면서 이야기를 빨리 읽지 않고는 못 배기게 된답니다.

## ▶ 이야기를 읽어 주면서

첫 번째 장에서는 장미아파트 101동 406호에 살고 있는 아들과 아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분홍 문을 가지고 있는 그 아파트이지요. 아마도 이들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것 같아요. 하지만 집이 엉망진창이네요.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다가 들어온 아빠는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다가 늦게 일어난 아들이 먹는 라면을 빼앗아 먹으려고 난리입니다. 엄마는 어디 갔을까요? 이 가족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이야기 해 볼까요?

아들의 이름은 박향기입니다. 향기 나는 사람이 되라고 지어준 이름이지만 학교에서 친구들은 박냄새라고 부릅니다. 지각대장에 싸움대장인 향기는 복도에서 벌을 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친구들은 싸움대장 박향기에게 맞을까 봐 향기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지만 향기 뒤에서는 향기 흉을 봅니다. 학교에서 향기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빠의 이름은 박진정입니다. 박진정 씨는 전철역 앞에서 모자 가게를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가게 문을 열고 장사를 하는 날보다 가게 문을 닫고 술을 먹는 날이 더 많네요. 늘 배달 음식이나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기 일쑤이지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나날을 보내는 박진정씨는 매일 어떤 마음으로 살까요?

알고 보니 박향기와 박진정 씨에게는 완벽한 엄마이자 아내인 김지나 씨가 있었군요. 모자가게가 쉬는 넷째 주 일요일 아침, 된장찌개를 끓이려던 김지나 씨는 두부가 없는 것을 알고 두부를 사러 슈퍼에 갑니다. 5분이면 갔다 올 거라 생각하고 가스불도 끄지 않고 앞치마를 멘 채로 나갑니다. 하지만 두부를 사러 나간 김지나 씨는 그 뒤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두부를 사고 나오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사라진 엄마와 아내를 원망하며 아들과 아빠는 불량한 학생, 불량한 아빠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다는군요. 엄마 김지나 씨가 이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다면 뭐라고 말했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까치가 물어다 준 씨앗을 화분에 심고 물을 듬뿍 주고 잔 다음 날, 열매 하나가 열립니다. 그리고 그 열매 속에는 그토록 보고 싶었던 엄마이자 아내인 김지나 씨가 있었습니다. 물론 살아 있을 때의 모습 그대로는 아니고 날개가 달린 작은 요정과 같은 모습입니다. 72시간 동안만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너무나 보고 싶었던 그 누군가와 72시간을 함께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요?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고민이 되겠지요?

그런데 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어쩌면 박향기의 할머니 나복순 여사 때문인지도 몰라요. 할머니가 깎아 준 감을 먹다가 감 씨앗이 목에 걸려 일어난 일 이니까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보지 못하는 엄마를 나복순 여사는 볼 수 있었지요. 엄마를 위해서 닭백숙도 끓여주었으니까요. 나복순 여사는 어떻게 엄마를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이 기적 같은 일과 나복순 여사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한 번 상상해 보는 것도 재미있겠지요?

꿈같은 72시간이 지나고 엄마는 하늘나라로 다시 돌아가고 맙니다. 박향기와 박진정 씨가 미션을 수행하면 엄마는 천사가 되어 그들을 지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분홍 문이었을 때 달았던 ‘행복한 우리 집’이라는 팻말에 얼룩을 가리기 위해 ‘그래도 행복한 우리 집’이라고 쓴 팻말을 초록 문 위에 걸어두고 길을 건넌 박향기 앞으로 커다란 간판이 떨어집니다.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주저앉은 박향기는 바로 그때 엄마를 닮은 구름을 발견합니다. 박향기는 드디어 엄마가 천사가 되어 자기 곁에 함께 있으며 자기를 지켜 준다고 생각합니다.

분홍문의 기억 © 김정은



★여러분도 천사가 나를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할 만한 일을 겪은 적이 있나요?  
그 경험을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볼까요?

### ▶이야기를 읽어 주고 난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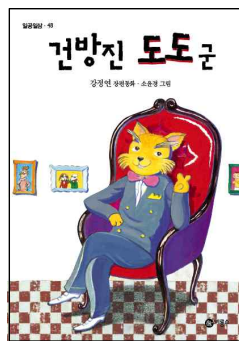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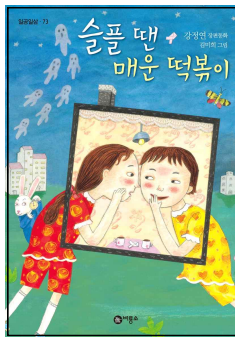
갑자기 세상을 떠난 엄마와 준비 없는 이별을 하게 된 박향기와 박진정 씨의 간절한 바람으로 72시간 동안이지만 김지나 씨를 만날 수 있게 되었지요. 여러분에게도 간절하게 바라는 어떤 일이 있겠지요? 까치에게 감 씨앗을 받을 수는 없지만 우리도 감 씨앗을 심을 수는 있겠지요. 여러분이 간절하게 바라는 일을 종이에 써 보세요. 그리고 그 종이를 플라스틱 통에 넣고 화단에 심어보세요. 화단이 없다면 조그만 화분에 흙을 넣고 심어도 좋고 종이컵에 흙을 넣고 심어도 좋겠어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그 일이 꼭 이루어지기를 매일매일 기도하고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그 일이 정말 현실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다음에 ‘그때 잘해줄걸’ 하고 생각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지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내가

해 줄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가족도 좋고 친구도 좋아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목록으로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사랑하는 엄마를 위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쓰고 그 밑에다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쭉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해 주는 것이지요. 안마하기, 안아주기, 사랑한다는 말 자주 하기 등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척 많을 거예요.

작가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은 유리잔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1초 후에 깨질지도 모를 유리잔과 같은 이 삶을 잘 살아내는 방법은 매순간 최선을 다해 누군가를, 무엇을, 사랑하며 사는 것밖엔’ 없을 거예요.

### ▶ 함께 읽어봐요



강정연 작가님의 『분홍 문의 기적』을 재미있게 읽은 친구라면 강정연 작가님의 다른 책들도 찾아 읽어보면 좋겠어요. 똥똥하다고 주인에게 버려진 애완견 도도 이야기인 『건방진 도도군』도 재미있고 구 년째 단짝인 선머슴 같은 선하와 장애가 있는 술희의 우정 이야기를 담은 『슬플 땀 매운 떡볶이』도 재미있어요. 동물원의 슈퍼 스타였던 범벅이가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나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린 『초록 눈 코끼리』, 작가님의 또 다른 가족 이야기인 『바빠 가족』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거예요.

『분홍 문의 기적』과 비슷한 소재로 쓴 시집도 있어요. 갑작스럽게 아빠를 잃은 아이가 슬픔을 딛고 씩씩하게 성장해 가는 과정을 담은 김미혜 시인의 『아빠를 딱 하루만』이라는 동시집도 감동 깊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